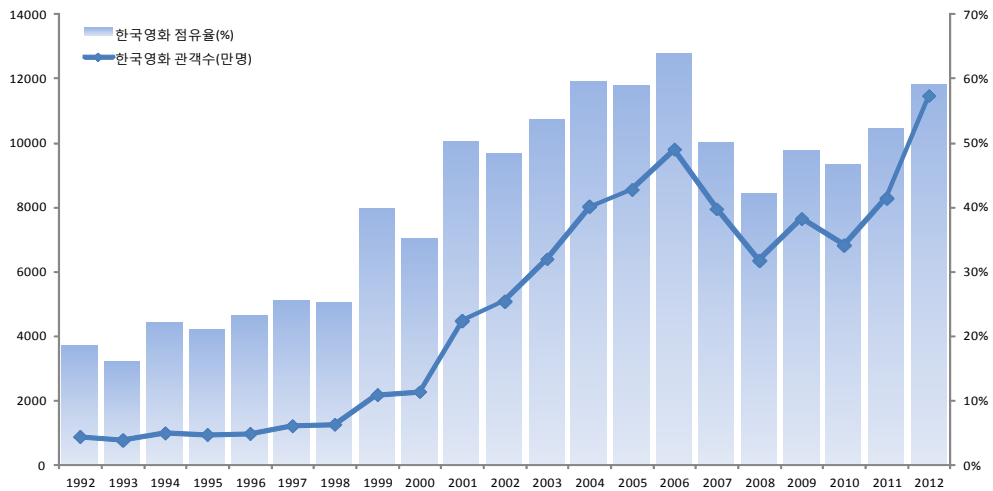


한국 영화산업의 노동환경과 과제

- 한국 영화 관객 수·시장점유율 비약적 증가
 - 한국 영화 관객 수는 1992년 872만 명에서 2012년 11,461만 명으로 20년 만에 13배 이상 크게 증가함.
 - 한국 영화 점유율은 2001년 최초로 50%를 넘어섰으며, 2006년 정점(63.8%)을 거쳐, 2012년에는 58.8%에 이룸.

[그림 1] 한국 영화 관객 수와 점유율(1992~2012)



자료 :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(www.kmdb.or.kr).

- 영화산업 매출액, 수출액, 종사자 수(2013년 1분기)
 - 한국콘텐츠진흥원(2013)에 따르면, 2013년 1분기 영화산업 매출액은 1조 1,045억 원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10.6%, 전분기대비 5.2% 증가한 수치임.
 - 영화산업 수출액은 113억 원을 기록함. 이는 전년동기대비 32.5% 증가한 것임.
 - 2013년 1분기 영화산업 종사자 수는 3만 349명으로 나타남. 이는 전년동기대비 2.6%, 전분기대비 0.6% 증가한 수치임.
- 생산과 부가가치, 그리고 많은 일자리를 연쇄적으로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영화산업의

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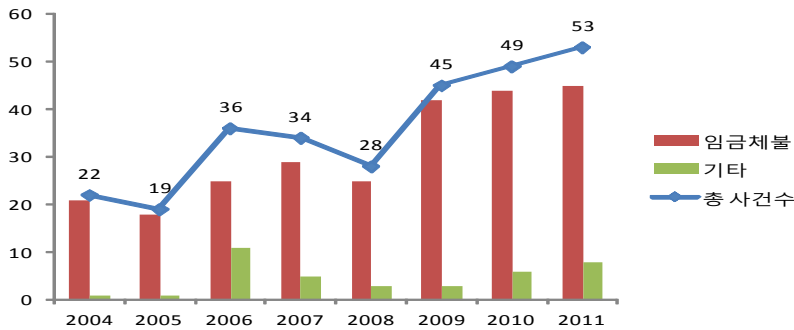
○ 한국 영화 노동시장의 그림자

- 영화산업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화스태프들은 매우 열악한 작업환경과 임금을 감수해 옴.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영화산업의 비합리적 분배구조에 있음.
- <빅파이-한국 영화산업 나눠먹기>2)에서 제시한 영화제작비 사용내역에 따르면, 제작사들은 전체 제작비의 8%만을 전체 영화스태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음3).

○ 임금체불 실태

-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운영하는 ‘영화인신문고’에 접수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임금 체불 사건임.
- 2009년의 경우, 42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함. 체불인원 수는 467명에 달하며, 인원별 체불임금은 360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남.

[그림 2] 영화인신문고 접수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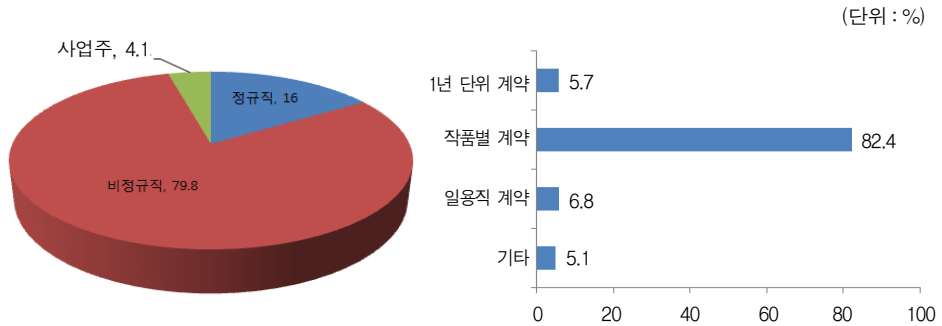
주: 기타에는 산재 관련, 부당해고, 폭행사건, 채무, 계약, 인센티브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됨.
 자료: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(www.fkmwu.org).

○ 고용계약 실태

- 영화진흥위원회(2012)4)에 따르면, 영화스태프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의 79.8%를 차지하며, 정규직 비율은 16%에 불과함.
- 작품계약 형태의 경우, 작품별 계약이 가장 높은 비중(82.4%)을 차지하였으며, 일용직 계약(6.8%)이 그 뒤를 이음.

1) 한국은행(2004), 「우리나라 영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」.
 2)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(2006), 「빅파이-한국영화산업 나눠먹기」.
 3) 최인이(2010), 「한국 영화산업의 노사관계 시스템 형성에 관한 연구」, 『산업노동연구』 16(2), pp.199-232.
 4) 영화진흥위원회(2012)의 「2012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」에 참여한 영화인은 총 598명임.

[그림 3] 영화스태프의 고용형태와 작품계약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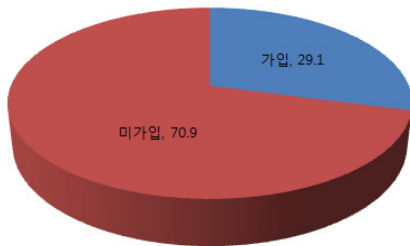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영화진흥위원회(2012).

○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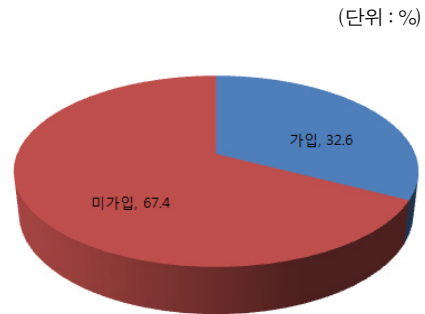
- 단속적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고용의 특수성, 상해사고가 빈번한 촬영 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, 영화인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이슈임.
- 영화스태프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9.1%, 산재보험 가입률은 32.6%에 불과함.

[그림 4] 고용보험 가입 유무



자료 : 영화진흥위원회(2012).

[그림 5] 산재보험 가입 유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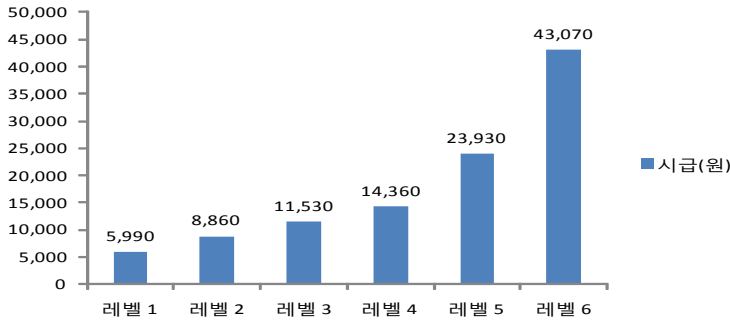


○ 조직화와 성과

- 수년간에 걸친 영화스태프들의 조직화 노력으로 2006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탄생함.
- 영화산업노조는 2006년 4월 민주노총 공공연맹에 가입하고, 2007년 4월 한국영화 제작가협회 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함.
- 영화진흥위원회(2012)에 따르면,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임.
- 2012년 체결된 단체협약은 월 1회 이상 정기적 임금지급, 산업최저시간급 인상, 추가인력 최저일급 지정, 선거일 투표시간 보장, 영화산업 표준계약서 적용 등의 항목이 포함됨.
- 2013년 현재 진행중인 임금협약에서 영화산업노조는 임금지급의 최저기준을 다음

과 같이 제시함.

[그림 6] 영화산업노조의 임금지급 최저기준 요구안(2013)⁵⁾



자료 :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(2013).

- 2013 임금 및 단체협약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6대 요구사항은 시급임금, 경력수당, 표준근로계약서, 적정휴무 보장, 법정수당, 유급휴일 등에 관한 것이며, 요구안의 범위와 수준은 법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에 맞추어져 있음.

○ 열악한 노동시장 개선은 한국 영화산업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

- 한국 영화가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는 영화산업 스태프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함.

(송민수,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)

5) 영화산업 직급·직무의 임금분류 권고안에 따르면 각 레벨의 분류는 다음과 같음. **레벨1**: 수습, **레벨 2**: 제작(3rd, 로케이션팀원 제작부원, 기획재정팀원, 제작회계, 로케이션팀원 제작부원, 제작지원), 연출(3rd AD, 미술/특수효과 담당 연출부원, 스토리보드), 촬영(3rd AC, 데이터매니저, 필름로더, 카메라 세팅 및 관리), 조명(3rd, 조명장비 관리 및 운용지원), 미술(3rd, 미술 현장진행자, 미술어시스턴트), 소품(소품운용지원), 분장/헤어(분장/헤어 운용지원), 의상(의상 운용지원), **레벨 3**: 제작(2nd, 제작부장, 기획재정팀장, 로케이션팀장, 현장제작팀장, 포스트프로덕션 슈퍼바이저), 연출(2nd AD, 인물담당 연출부원, 스크립터), 촬영(2nd AC, 카메라세팅매니저), 조명(2nd, 조명장비세팅매니저), 미술(2nd, 세트드레서, 캐릭터디자이너, 소품디자이너, 그래픽디자이너, 일러스트레이터), 소품(2nd, 소품매니저), 분장/헤어(2nd, 분장/헤어매니저, 특수효과 분장팀원), 의상(2nd, 의상매니저), 녹음(2nd, 케이블맨), 현장편집(1st, 현장편집 보조), 그립(1st, 그립팀원), **레벨 4**: 제작(1st, 제작실장), 연출(1st AD, 조감독, 기획조감독), 촬영(1st AC, 촬영팀장, 포커스풀러), 조명(1st, 조명팀장, 일렉트릭칼라매니저), 미술(1st, 미술팀장, 세트데코레이터, 세트디자이너, 컨셉디자이너), 소품(1st, 소품팀장), 분장/헤어(1st, 분장팀장, 헤어팀장, 특수효과 분장팀장), 의상(1st, 의상팀장), 녹음(1st, 붐맨, 붐오퍼레이터), 현장편집(편집기사), 그립(그립기사, 그립팀장), **레벨 5**: 제작(라인프로듀서), 촬영(카메라오퍼레이터), 미술(아트디렉터), 소품(소품실장), 분장/헤어(분장/헤어실장, 헤어/메이크업 아티스트), 의상(의상실장, 의상디자이너, 의상코디네이터), **레벨 6**: 촬영(촬영감독), 조명(조명감독), 미술(미술감독, 프러덕션디자이너), 녹음(동시녹음감독).